

하이패션의 스누드(Snood)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이미지

양 아 랑[†] · 이 효 진*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의류학전공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Image Expressions of High-Fashion Snood Coordination

A-Rang Yang[†] and Hyo-Ji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7. 19. 접수일 : 2010. 9. 27. 수정완료일 : 2010. 12. 4.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ordination images seen in comprehensive fashion items and their features. This will be done from the viewpoint of both the creativity as well as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items and images. For the method of study, I explored the idea of "snood" style, analyzing its features of 42 pictures appearing from the 2006 S/S to 2010 F/W collec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nood" styl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 muffler and turtleneck. With looping design connected at both ends, it can be placed around the neck or head, creating the image of wearing a hood. After having examined the selected data and pictures, one can largely divide the exclusive high-fashion image categories into three types: feminine, avant-garde, and finally, active & functional sportive image. First, the orthodox image is widely accepted by most as it has forever evolved within the original tradition of the practically functional muffler(scarf). Second, since the metamorphic image tends to lend itself to free ideas, you can wear a snood around the shoulders like a collar. Worn together with the same type of clothing, the snood can be seen as an effective suit. Third, the aim of image emphasis is to highlight certain points, or make some features more noticeable, as a means of possibly attracting more interest and attention. The image of snood arises out of the use of shapes, colors, and other accessory parts. As mentioned earlier, snood stands out as an independent item instead of just being an accessory to clothing. Its primary function as a style coordinator is emphasized in order to create more distinctive fashion images. Through this study, I thereby intend to provide fashion style data on the latest trends, and high-fashion codes of snood coordination.

Key words: snood(스누드), orthodox image(오소독스 이미지), metamorphose image(메타몰포제 이미지), emphasis image(엠피시스 이미지).

I. 서 론

복식에 있어서 패션 소품은 패션을 마무리하는 요소로 다양한 종류의 소재와 형태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토시와 넥워머 등의 패션 소품의 경

[†] 교신저자 E-mail : arang16@jbnu.ac.kr

우, 기능성을 위해 스포츠웨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아이템이 일상복으로 채택되고 하이패션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패션 소품 중에서 기능성과 장식성이 함께 갖춘 것으로 최근 스누드(snood)가 유행하며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목도리의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네크라인 디자인이 카울넥(cowlneck), 터틀넥(turtleneck)과 같은 변화를 하거나 숄, 머플러, 스카프, 스누드 등의 아이템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누드는 머플러와 터틀넥의 중간 형태로 둥글게 양끝이 연결된 고리 형태의 디자인으로 목 부분에 걸칠 수 있고, 머리에 써서 후드(hood) 형태로도 연출할 수 있다. 스누드 기능은 목의 보온성을 뛰어넘어 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멋스러운 자신의 개성을 살린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

최근 스누드는 셀러브리티(celebrity)들의 공식석상 의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국내외 패션잡지와 신문기사에서 ‘2010년 잇 아이템 스누드’¹⁾, ‘거리에는 스누드 물결’²⁾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로 실리면서 패션리더들을 통해 수용되고 여러 브랜드에서 제시한 스타일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이패션에서도 봄, 여름 시즌에는 여성스럽고 산뜻한 느낌의 실크와 쉬폰, 레이스, 가을, 겨울 시즌에는 목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퍼, 니트 등의 소재를 활용한 스누드가 나타남으로써 패션 소품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스누드가 현대패션의 유행을 이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이패션까지 확산되어 유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누드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1세기 들어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에서 나타난 스누드는 소재, 색, 형태에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이에 스누드가 단독 아이템이 아닌 여러 다른 아이템들과 어울려 착용될 때 또 다른 코디네이션 이미지가 연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누드 아이템 단독 이미지로 활용되는 기능적 특성 이외에 착용에 있어서 패션의 종합적인 아이템이나 요소들과 조화된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에 하이패션의 스누드 코디네이션에 따라 현재 트렌드의 패션 스타일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스누드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컬렉션에 나타난 스누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스누드는 최근에 나타난 아이템이므로 시대적 범위를 2006년 S/S 컬렉션부터 2010년 F/W 컬렉션까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범위를 토대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 논문과 국내외 패션 잡지,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스누드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컬렉션에 나타난 스누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스누드는 최근에 나타난 아이템이므로 시대적 범위를 2006년 S/S 컬렉션부터 2010년 F/W 컬렉션까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범위를 토대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 논문과 국내외 패션 잡지,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스누드에 대한 고찰

1. 스누드의 개념

스누드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이 착용한 후드 또는 헤어네트의 형태³⁾, 여성이 뒷머리에 장식적으로 씌우는 머리 망⁴⁾, 리본, 땀기 또는 헤어네트식 모자, 그물 모자 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스누드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스코틀랜드·영국 북부에서 젊은 미혼 여성들이 사용했던 헤어밴드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⁵⁾. 그러나 21세기 일반적인 스누드의 의미는 둥글게 양끝이 연결된 고리 형태의 디자인으로 목 부분에 걸칠 수 있고, 머리에 써서 후드로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따라서 스누

1) 이지현, “아직도 스카프? 잇 걸은 ‘스누드’를 두른다.” *한국경제* [온라인기사] (2009년 11월 9일 [2010년 3월 1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

2) 두정아, “머플러야 솔이야. 거리에는 ‘스누드’ 물결.” *세계일보* [온라인기사] (2009년 11월 28일 [2010년 3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

3)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온라인사전] (2010년 8월 18일 [2010년 8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n.wikipedia.org/wiki/Snood>

4) Oxford University Press 편집부,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Washingt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2131.

5) 10th Edition Harper Collins Publishers, *Collins English Dictionary 30th Anniversary Edition* [온라인사전] (2009년 [2010년 8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423eb99f98433b9043f06e8752db39>

드는 양끝을 연결한 디자인을 제외하면 스카프의 범주에 해당하며 이에 스카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스카프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장식이나 방한의 목적으로 목, 어깨, 또는 머리에 두르는 울, 레이스, 실크 등의 재료로 만든 길고 넓은 띠이다. 둘째, 양 끝이 늘어진 크라바트 넥타이, 셋째, 책상과 테이블 등을 위한 긴 덮개 또는 장신 천이라고 정의되고 있다⁶⁾.

또한 Fairchild's 복식사전에 의하면 스카프는 첫째,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하고 방한과 장식을 위해 머리에 쓰는 실용과 장식을 겸비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둘째, 어깨부터 반대편 힙까지 대각선

으로 몸에 걸쳐 허리에 감는 천이나 어깨에 두르는 장식적인 띠(sash)이다. 셋째, 1830년에 남자들이 스카프를 타이핀으로 고정시켰고, 셔츠 앞을 덮어 걸쳤던 매우 커다란 크라바트이다. 넷째, 19C 후 넥타이는 끝에 넓게 매달린 것, 검정색으로 된 좁은 넥타이라고 한다⁷⁾.

이러한 스카프의 역할은 과거에 인류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생활수단 및 사회구조에 따른 복식의 발달 양식에 따라 변천되어 시대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장신구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표 1〉은 스카프의 종류이며,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스누드는 새로운 형태인 고리형으로 나누었고, 스카프 각 종류들의 양끝이 연결된 것으로 소

〈표 1〉 스카프의 종류

종류	스카프 명칭	특징
장방형의 스카프	맥시 스카프(Maxi scarf)	길이가 극단적으로 긴 스카프를 말한다.
	머플러(Muffler)	스тол과 같이 목에 두르는 것으로 방한용으로 두껍게 된 것을 말한다.
	해킹(Hacking)	머플러의 일종으로 니트나 직물로 만들어진 180cm 정도의 긴 것을 말한다.
	초커(Choker)	“목에 알맞게 감기는 장식”이라는 뜻으로 짧은 목도리 등을 가리킨다.
삼각형의 스카프	세일러 스카프(Sailora scarf)	세일러 칼라 아래로 돌려 묶는 삼각형의 천으로 칼라 모양처럼 만든다.
	힙 랩 스카프(Hip rap scarf)	커다란 스카프로 힙을 감는 것으로 최근 그 사용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도파티(Dopatti)	인도 북서부 편잡지방의 힌두교나 이슬람교도의 얇은 스카프를 말한다.
	스페인쉬 숄(Spanish shawl)	스페인 특유의 목도리를 말한다. 네 귀에 술을 단 사각형인데 삼각형으로 접어 착용한다.
정방형의 스카프	네커치프(Neckerchief)	무늬가 없거나 정방형의 무늬가 있는 수건으로 장식적인 목도리로 쓰인다.
	숄(Shawl)	천이나 모사 제품으로 된 어깨 덮개를 말한다. 정방형, 삼각형, 장방형 등이 있다.
	케이프 스톨(Cape stole)	케이프형으로 어깨를 덮고 가슴에서 맨다.
	만틸라(Mantilla)	스페인 여성이 차림하는 독특하고 큰 스카프를 말한다.
	샬 제앙(Sour Geant)	디오르사의 1977년 S/S 컬렉션의 대표적인 액세서리로 커다란 숄을 말한다.
	스위프(Sweep)	뉴욕의 디자이너 미야 가우디 여사의 발상에 의한 어깨에 걸치는 머플러의 명칭이다.
	행커치프(Handkerchief)	손담기용 또는 장식용의 정방형 천을 말한다. 현재는 거의 실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리형의 스카프	스누드(Snood)	둥글게 양끝이 연결된 고리 형태로 목과 어깨에 착용한다.

6) 정희경, 김정혜,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복식 52권 5호 (2002), p. 49.

Lois Martin,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1994), p. 14.

7) 정희경, 김정혜, op. cit., p. 49.

Charlotte Mankey Calas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Books, 1998), p. 480.

재, 색, 실루엣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누드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21세기 새롭게 사용된 의미를 포함하여 재정립하였으며, 넓은 의미로는 스카프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스누드의 변천

스누드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스카프의 범주에 해당한다. 스카프의 종류가 장방형의 스카프, 삼각형의 스카프, 정방형의 스카프로 나뉘는데, 이는 모두 디자인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러한 구분은 모호해졌으며, 스누드의 경우 양쪽 끝이 연결된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스누드가 포함된 스카프의 경우 패션 소품의 하나로서 시대에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패션에서 자기연출을 위해 사용되며, 장식적인 역할은 복식의 발달과 함께 변천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머리를 깎고 가발(Wig)이나 머리 수건을 접어 엮은 커치프(Kerchief)를 착용하였는데, 이때 왕이나 여왕이 쓴 두건의 형태를 클라프트(Klart)라고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남녀 공용의 길쭉은 히마티온을 방한의 목적으로 키톤이나 페플로스 위에 몸 전체를 감싸듯이 어깨에 걸쳐서 약천 후나 상을 당할 때 머리에 쓰는 습관이 있었다⁸⁾.

중세 복식에서는 비잔틴 복식에서 베일을 사용하였다. 6세기 경 사라센 족이 동방에서 서유럽으로 침입하여 사라센 의복이 비롯되어 여자는 튜닉 위에 대형의 천으로 머리에서 몸을 완전히 뒤덮기도 하였다⁹⁾. 이는 이슬람교의 상징으로 전반적으로 소박하였으며 베일 모양은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었다. 11~12세기 경 로마네스크 복식에서 팔라가 간소화된 베일을 머리에 덮어쓰고, 쇼(Show)

도 착용하였다¹⁰⁾.

근세 복식에서는 16세기에 게이블 후드(Gable hood)가 유행하여 뾰뾰한 프릴이 달린 흰색이나 금색의 천으로 얼굴과 머리를 감싸서 기혼 여성은 이를 쓰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지금의 타이 형태의 원조였던 크라바트를 착용하였다.

근대 복식에서는 1840년대에 롱 스카프를 목에 두 번 두르고 헐렁하게 앞에서 묶음으로써 완으로 고정시키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¹¹⁾.

19세기 초 여자복식은 허리선이 높은 드레스로 넓이 보다는 길이가 더 길어진 스카프가 쓰였으며, 깃털이나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스완스다운 팔라티움(Swansdown Palatime) 스카프로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장신구로 유행되었고 크기와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여자복식에서 계속 이어졌다¹²⁾.

현재와 같은 스카프는 19세기 이르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로 여성용의 액세서리로 네크라인을 장식하거나 머리를 덮기도 하고 벨트 대신 허리에 사용하는 장식물이 애용되었다¹³⁾.

스카프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이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공예디자인 운동을 바탕으로 1920년대 장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액세서리가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24년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술과 패션이 일치했던 때 활동했던 파리의 미술가로 가장 아름다운 스카프를 만들었다¹⁴⁾. 수놓아진 것, 아플리케가 달린 것, 손으로 그림 그려진 것 등의 스카프들은 1.8미터 길이에 45센티 폭으로 나타났다¹⁵⁾.

1930년대 초반 샤를 제임스(Charles James)는 스카프를 재창조하여 리본이 달린 트럼프 모양의 스카프, 주름지고 끝이 둥글거나 원뿔 모양, 혹은 삼

8) 박순천, 김은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법 및 착용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4호 (2005), pp. 623-624.

9) 이정옥, 최영주, 최경주,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87), pp. 87-99.

10) 박순천, 김은실, *op. cit.*, pp. 623-624.

11) *Ibid.*, pp. 623-624.

12) 정희경, 김정혜, *op. cit.*, p. 50.

13) *Ibid.*, p. 50.

14) Andrew Baseman, *THE SCARF*, (New York: Tabori & Chang, 1989), p. 12.

15) 정희경, 김정혜, *op. cit.*, p. 50.

각형을 주름진 모양의 스카프로 디자인 했다. 이 시기의 파리의 재단사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스카프를 소개했다. 이것은 요즘의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생산하는 품목이 되었다고 한다¹⁶⁾.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큰 정방형의 실크스카프가 유행하게 되었다. 군인들이 집에 보낼 선물로 인기를 모았던 이 스카프는 전쟁 시 사기를 북돋아주는 기념적인 스카프는 물론 디자이너 라벨이 부착된 스카프를 포함하였다. 1919년에서 1939년 사이에 여성 모드가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이는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여성과 여성운동의 사회 변화에 의해 의복은 단순하고 간소화되면서 액세서리는 더욱 화려해지고 다양해져서 자연스럽게 스카프의 역할도 장식적인 역할로 뚜렷해졌다¹⁷⁾.

1960년대 영국에서는 스카프모자가 대유행하였고, 1970년대는 페라가모가 스카프 사업에 합류하면서 커다란 사각형 스카프는 표범, 호랑이, 이국적인 열대수의 잎의 생생한 묘사를 촉진시켰다.

1980년대 이후 선구적인 디자이너들은 예전과는 달리 하이패션에서 모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스카프들을 머리와 목에 두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친 스카프는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개성적 표현과 장식적 효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급변하는 패션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스카프가 형태, 색, 소재 등의 디자인 요소가 변화하면서 그 종류의 하나로 스누드가 탄생되었고,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에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III.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누드 이미지

선정된 사진자료를 고찰한 결과,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누드 단독 이미지는 여성스러운 페미닌 이미지(Feminine image),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이미지(Avant-garde image),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스포티브 이미지(Sportive image) 크게 세 가지로 분석

할 수 있었으며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1. 페미닌 이미지(Feminine Image)

페미닌 이미지는 여성스러운, 아름다운 등의 의미로 패션에서는 여성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움 등을 표현한 스타일을 말한다. 소녀와 같은 귀여운 느낌부터 로맨틱한 감미로운 느낌, 섹시하고 대담한 이미지까지 포함된다¹⁸⁾.

패션에서 페미닌 이미지는 일정한 모양이나 규격은 없지만 색상이나 형태에서 여성적인 요소들로 그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럽게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페미닌 이미지의 디자인 요소들은 셔링, 프릴, 개더, 자수, 코사지, 리본 등 장식의 아이템들과 라이트 톤, 레드, 핑크, 오렌지 등의 난색 계열의 색이 나타난다. 또한 소재는 레이스, 오간자, 보일 등의 얇고 비치는 소재와 꽃무늬, 물방울무늬, 캐릭터 등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페미닌 이미지의 경우 S/S 시즌에 거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은 2008 S/S John Galiano의 작품으로 대표적인 소재에 의한 페미닌 이미지를 보인다. 동물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니트 소재의 스누드를 머리와 목에 둘러매고 있고, 짙은 블루에 파스텔톤의 무늬가 조화를 이루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2>는 2009 S/S Marc by Marc의 작품으로 대표적인 색에 의한 페미닌 이미지를 보인다. 보온의 목적 보다는 장식의 목적을 더욱 중요시한 디자인으로 핑크, 옐로우, 바이올렛 등 여성스러운 색의 털실을 이용하여 뜨개질한 디자인이다. 마치 목걸이처럼 보임으로써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3>은 2009 F/W Christian Lacroix의 작품이다. 스누드의 소재가 블랙의 파일직물을 이용한 것으로 목에 여러 겹 둘러서 스커트의 부피감과 상의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식을 보이며, 소재와 실루엣에서 섹시한 여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스누드 소재가 인체의 곡선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16) Ibid., pp. 50-51.

17) Ibid., p. 51.

18) 이진숙, 김용숙, 이효진, 염혜정, *현대인의 패션*, (서울: 교문사, 2003), p. 195.



<그림 1> 2008 S/S
John Galliano.



<그림 2> 2009 S/S
Marc by Marc.



<그림 3> 2009 F/W
Christian Lacroix.



<그림 4> 2010 S/S
Betty Jackson.

시스루 소재를 이용하여 관능적인 페미닌 이미지를 보인다.

<그림 4>는 2010 S/S Betty Jackson의 작품이다. 스누드는 하늘거리고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에 주름이 잡힌 소재를 이용하여 목을 감싸고 있으며, 꽃무늬에 스카이블루를 이용하여 상의에 마치 볼륨이 있는 칼라처럼 보이며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2. 아방가르드 이미지(Avant-garde Image)

아방가르드는 군대의 전위부대를 가리키나 유럽에서 일어난 혁신적인 예술운동의 총칭이다. 기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한다거나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실험적 성격이 짙은 전위예술로써 입체파, 추상파, 초현실주의파 등이 이에 해당 한다¹⁹⁾.

패션에서 아방가르드는 격식과 전통에 구애받지 않은 독창적이고, 기발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스타

일을 의미한다²⁰⁾. 아방가르드 패션 특징은 디자인 요소에서 색상이나 형태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어 전위적인 것과 연예인의 무대 의상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다. 의상의 기능성이나 실용성이 무시된 채 화제성을 추구하고 입는다는 목적보다는 감상한다는 예술성 위주의 패션이다.

아방가르드 패션의 형태는 구조적인 형태, 비대칭, 벌크 실루엣, 여성성과 남성성을 무시하거나 교차시킨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디자인들이 나타난다. 색은 뉴트럴 톤,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적인 색 등 형식에 메이지 않고 있으며, 소재는 퍼, 니트, 가죽 등이 나타난다. 특히 스누드의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과장된 실루엣을 대표로 하고 있다.

<그림 5>는 2007-08 F/W Kenzo의 작품으로 커다란 원통형의 니트를 뒤집어 쓴 형태로 색은 스카이블루로 부피가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특히 특별한 무늬나 장식 없이 실루엣을 과장되게 보이는 효과를 극적을 보인다.



<그림 5> 2007-08 F/W
Kenzo.



<그림 6> 2007-08 F/W
Just Cavalli.



<그림 7> 2009 F/W
Missoni.



<그림 8> 2009 F/W
Missoni.

19) 김종복, *패션키워드*, (서울: 도서출판 시대, 2002), p. 106.

20) 이진숙, 김용숙, 이효진, 염혜정, *op. cit.*, p. 195.

〈그림 6〉은 2007-08 F/W Just Cavalli의 스누드로써 가장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모자와 같이 머리에 쓰고 턱 밑까지 지퍼로 여몄으며, 퍼 소재를 이용하여 소재를 이용한 극대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림 7〉은 2009 F/W Missoni의 작품으로 머리에 쓰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서 연출하였다. 소재는 니트이며, 색은 레드 브라운으로 허리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원통형의 형태로 상체의 대부분을 가릴 정도로 큰 실루엣이다.

〈그림 8〉은 2009 F/W Missoni의 작품이다. 퍼와 니트를 함께 사용하고 머리에 쓰거나 목에 두르고 있다. 색은 블랙, 브라운, 그레이, 화이트 등의 뉴트럴 톤의 색을 사용하고 니트와 퍼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으로써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준다.

3. 스포티브 이미지(Sportive Image)

스포츠 이미지란 유희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등의 의미이다. 패션에서 테니스, 골프, 스키 등 스포츠 웨어가 갖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일반 의복에 도입한 활동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을 말한다²¹⁾.

패션에서 스포티브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건강해 보이는 캐주얼 이미지로서 입기에도 편안하고 기능성을 중요시하여 활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 이미지의 패션요소로 형태는 몸에 꼭 맞거나 자연스럽게 걸친 형태들이며, 색은 비비드 톤, 스트롱 톤, 브라이트 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원색과 카키색이 있고, 소재는 니트, 저지, 폴리에탄 등의 신축 소재와 패딩 소재가 사용되며 최첨단 소재가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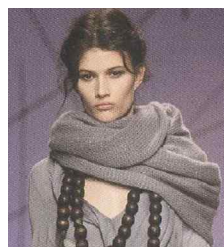
〈그림 9〉는 2007-08 F/W Balenciaga의 작품으로 색은 블랙, 바이올렛, 그레이를 배색하였으며, 패딩 처리를 하여 스포티브 이미지를 보인다. 목에 꼭 맞도록 두르고 귀여운 캐릭터 브로치를 함께해서



〈그림 9〉 2007-08 F/W Balenciaga.



〈그림 10〉 2008-09 F/W Daks.



〈그림 11〉 2008-09 F/W Emanuel Ungaro.



〈그림 12〉 2009 F/W Les Copains.

〈표 2〉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누드 이미지

스누드 이미지	조형적 특징	패션요소에 나타난 특징
페미닌 이미지 (Feminine image)	· 색상이나 형태에서 여성적인 요소들로 그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	· 실루엣 - 셔링, 프릴, 자수, 리본 등 장식적인 형태 · 소재 - 얇고 비치는 소재(레이스, 보일, 오간자), 꽃무늬, 캐릭터 소재 · 색 - 레드, 핑크, 오렌지
아방가르드 이미지 (Avant-garde image)	· 격식과 전통에 구애받지 않은 독창적이고, 기발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스타일	· 실루엣 - 구조적인 형태, 벌크실루엣, 비대칭 등의 실험적인 형태 · 소재 - 퍼, 니트, 가죽 · 색 - 뉴트럴 톤,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적인 색
스포츠 이미지 (Sportive image)	· 자연스럽게 건강해 보이는 캐주얼 이미지로서 입기에도 편안하고 기능성을 중요시하여 활동적인 것	· 실루엣 - 몸에 꼭 맞거나 자연스럽게 걸친 형태 · 소재 - 패딩 소재, 최첨단 소재, 신축소재(니트, 저지) · 색 - 원색, 카키색

21) 이진숙, 김용숙, 이효진, 염혜정, op. cit., p. 195.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그림 10>은 2008-09 F/W Daks의 작품으로 대표적인 스포티한 이미지의 스누드이다. 패딩소재를 이용하였고, 옐로우, 블랙을 배색해서 색과 소재 형태 전체적인 부분에서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블랙 플라스틱 단추로 장식하고 블랙 파이핑을 하여서 부자재 또한 스포티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11>은 2008-09 F/W Emanuel Ungaro의 작품이다.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두르는 형태로 그레이의 니트로 돼 있다. 목과 어깨에 두르는 일반적인 목도리의 디자인으로 평소에도 착용할 수 있는 색상, 패턴을 이용하여 스포티브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2>는 2009 F/W Les Copains의 작품이다. 색은 브라운이고, 블랙의 단추를 이용하여 여밈으로서 더욱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있다.

IV. 스누드 코디네이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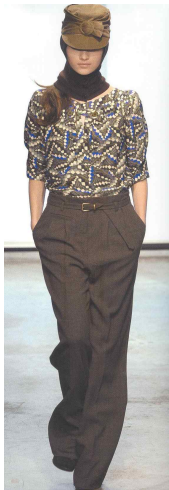
III장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누드만의 이미지를 고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코디네이션 이미지는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다. 스누드 단독 이

미지에서 실루엣, 색, 소재 등의 패션요소를 살펴보고, 이상의 스누드 단독 이미지가 의상,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과 함께 패션 코디네이션 됨으로써 조화를 이뤄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본래 목도리의 기능의 전통적인 오소독스 이미지, 의상과 함께 착용하면서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한 메타몰포제 이미지, 다른 곳보다 돋보이도록 형태나 부속품, 색을 이용하여 강조한 엠파시스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오소독스 이미지(Orthodox Image)

오소독스 이미지(Orthodox image)는 ‘전통적’, ‘보수적’, ‘인습’, ‘본연’이라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꾸준히 전해져 내려온 것, 즉 누구나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복식에서는 개성적인 것이 아닌 평범한 것, 그러면서도 격조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²²⁾. 스누드를 연출한 것을 살펴보면 모와 캐시미어, 실크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체크, 스트라이프 무늬로 일반적인 목도리의 연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은 2007-08 F/W Karen Walker의 작품으로 형태는 목에 꼭 맞는 크기의 스누드이다. 스누드의 색은 브라운으로 의상에서부터 모자, 벨트



<그림 13> 2007-08 F/W Karen Walker.



<그림 14> 2009 F/W Burberry Prorsum.



<그림 15> 2009 F/W Burberry Prorsum.



<그림 16> 2009 F/W Les Copains.

22) 김종복, op. cit., p. 13.

까지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이 유사톤 내의 브라운 계열로 이루어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톤인톤 배색을 보였다. 또한 스누드는 바지와 똑같은 색으로 코디네이션의 균형을 이루고 소재는 니트로 착용에 용이하다. 이와 같이 형태, 색, 소재까지 대표적인 전통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림 14>는 2009 F/W Burberry Prorsum의 작품으로 체크무늬의 스누드와 퍼 소재의 스누드가 함께 나타난다. 일반적인 칼라크기의 길이로 블랙 퍼로 된 스누드 위에 전통적인 머플러 디자인인 브라운, 블랙, 화이트 색의 체크무늬 스누드를 함께하여 그레이계열의 드레스와 조화를 이뤄 일상적으로 착용 가능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5>는 2009 F/W Burberry Prorsum의 작품이다. 브라운의 전통회화가 그려진 원피스에 실루엣이 큰 그레이 니트 스누드를 착용하여 기본적인 의상에 착용 가능하고, 단정한 느낌의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완성하였다.

<그림 16>은 2009 F/W Les Copains의 작품으로 광택이 있는 비닐 소재 의상에 어느 의상이나 착용 가능한 전통적인 브라운 니트 스누드를 하고 있다. 스누드의 사각형 단추와 의상에 나타난 다르 색으로 덧댄 주머니, 벨트 여밈을 사각형으로 해서 문양의 유사조화와 니트와 비닐소재에서 재질의 대

비조화를 보인다.

2. 메타몰포제 이미지(Metamorphose Image)

메타몰포제 이미지(Metamorphose image)는 ‘변화’, ‘변신’이라는 의미로 패션 아이템이 자유자재로 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스누드의 연출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운데 지퍼가 달린 스누드는 지퍼를 내려서 어깨에 칼라처럼 연출하고 소재가 퍼와 니트로 된 스누드는 같은 소재의 의상을 착장하여 한 벌의 의상처럼 보이도록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림 17> 2007-08 F/W Kenzo의 작품이다. 상의부터 머리와 목을 감싼 스누드까지 스트라이프 무늬가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한 벌의 의상처럼 보이는 시각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8> 2007-08 F/W Dolce & Gabbana의 작품으로 스누드가 코트의 칼라처럼 보인다. 화이트 원단에 블랙 시스루 소재로 덮은 특수 소재원단의 코트에 블랙과 화이트가 함께 있는 퍼 스누드이다. 소재는 다르지만 재질이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겹쳐진 부분의 분위기가 유사하여 스누드와 코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19> 2009 F/W Burberry Prorsum의 작품이다. 원피스에 스누드와 모자, 구두까지 블랙의 무채



<그림 17> 2007-08 F/W Kenzo.



<그림 18> 2007-08 F/W Dolce & Gabbana.



<그림 19> 2009 F/W Burberry Prorsum.



<그림 20> 2009 F/W Fendi.

색으로 무거운 느낌에 얇고 속이 비치는 소재를 이용한 표면효과로 조화로운 코디네이션이 되어있다. 동일 색과 유사 소재를 이용한 메타몰포제 이미지를 보인다.

<그림 20>은 2009 F/W Fendi 작품으로 소재를 이용한 메타몰포제 이미지다. 같은 퍼 소재를 이용하여 윈피스의 카울네크라인으로 보인다.

3. 앰파시스 이미지(Emphasis Image)

앰파시스 이미지(Emphasis image)는 ‘강조’라는 의미로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강조점을 주는 것으로 스누드가 강조 부위가 되는 이미지이다. 형태, 색, 부속품을 이용한 앰파시스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길게 늘

어뜨리거나 과장되게 목에 두른 형태로 강조하거나 단추, 브로치, 코사지 등의 부속품을 사용하여 화려한 스누드를 연출하거나 의상에 주가 되는 주조색에 악센트 컬러로 스누드를 연출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은 2008-09 F/W Daks의 작품으로 의상과 스누드의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패딩소재를 이용하였고, 옐로우, 블랙을 배색해서 색과 소재 형태 전체적인 부분에서 스포티한 느낌의 스누드가 시폰을 이용한 부드러운 여성미가 강조된 드레스와 결합하여 스누드는 강조되고 독특한 연출을 하였다.

<그림 22>는 2009 F/W Fendi 작품으로 색을 이용한 강조를 보인다. 선명한 레드 스누드가 화이트



<그림 21> 2008-09 F/W Daks.



<그림 22> 2009 F/W Fendi.



<그림 23> 2009 F/W Christian Lacroix.



<그림 24> 2009 F/W Missoni.

<표 3> 스누드 코디네이션 이미지

스누드 코디네이션 이미지	조형적 특징
오소독스 이미지 (Orthodox image)	· 전통적으로 꾸준히 전해져 내려온 것, 즉 누구나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개성적인 것이 아닌 평범하고 그러면서도 격조 있는 것으로 모와 캐시미어, 실크 등의 소재 사용하여 나타났다.
메타몰포제 이미지 (Metamorphose image)	· 스누드의 연출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깨에 칼라처럼 혹은 스누드는 같은 소재의 의상을 착장하여 한 벌의 의상처럼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앰파시스 이미지 (Emphasis image)	·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강조점을 주는 것으로 스누드가 강조부위가 되는 이미지로 형태, 색, 부속품을 활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박스재킷과 조화를 이뤄 엠파시즈 이미지를 보인다.

〈그림 23〉은 2009 F/W Christian Lacroix의 작품이다.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이 인체의 곡선이 간접적을 드러난 시스루 소재를 이용하여 관능적인 이미지를 보인다. 블랙 과일직물의 스누드가 목에 여러겹 둘러서 스커트의 부피감과 상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실루엣과 색, 소재 모든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림 24〉는 2009 F/W Missoni의 작품으로 퍼 소재를 이용한 엠파시즈 이미지를 보인다. 색은 블랙, 브라운, 그레이, 화이트 등의 뉴트럴 톤의 색을 사용하고 니트와 퍼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를 이룸으로써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보여 실루엣을 이용하여 스누드 강조를 부각시키고 있다.

V. 결 론

스누드는 머플러와 터틀넥의 중간 형태로 둥글게 양끝이 연결된 고리 형태의 디자인으로 목 부분에 걸칠 수 있고, 머리에 써서 후드 형태로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21세기 들어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에서 나타난 스누드는 소재, 색, 형태에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코디네이션되고 있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에 스누드가 단독 아이템이 아닌 여러 다른 아이템들과 어울려 착용될 때 또 다른 코디네이션 이미지가 연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누드 아이템 단독 이미지로 활용되는 기능적 특성 이외에 착용에 있어서 패션의 종합적인 아이템이나 요소들과 조화된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누드 단독 이미지는 선정된 사진자료를 고찰한 결과, 페미닌 이미지, 아방가르드 이미지, 스포티브 이미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페미닌 이미지는 색상이나 형태에서 여성적인 요소들로 그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스누드 패션요소에 나타난 특징에서 실루엣은 셔링, 프릴, 자수, 리본 등의 장식적인 형태이며, 소재는 레이스, 보일, 오간자와 같은 얇고 속이 비치는 소재와 꽃무늬, 캐릭터 무늬

소재가 많이 나타나고, 색은 레드, 핑크, 오렌지 등이 나타났다.

둘째,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격식과 전통에 구애받지 않은 독창적이고, 기발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스타일이다. 스누드 패션요소에 나타난 특징에서 실루엣은 구조적인 형태, 벌크실루엣, 비대칭 등의 실험적인 형태가 많고, 소재는 퍼, 니트, 가죽 등이 있고, 색은 뉴트럴 톤,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적인 색이 나타났다.

셋째, 스포티브 이미지는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캐주얼 이미지로서 입기에도 편안하고 기능성을 중요시하여 활동적인 것이다. 스누드 패션요소에 나타난 특징에서 실루엣은 몸에 꼭 맞거나 자연스럽게 걸친 형태가 많고, 소재는 패딩 소재, 최첨단 소재, 니트, 저지와 같은 신축성이 높은 소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색은 원색, 카키색 등이 나타났다.

하이패션의 스누드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이미지는 본래 목도리의 기능의 전통적인 오소독스 이미지, 의상과 함께 착용하면서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한 메타몰포제 이미지, 다른 곳보다 돋보이도록 형태나 부속품, 색을 이용하여 강조한 엠파시즈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오소독스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꾸준히 전해져 내려온 것, 즉 누구나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개성적인 것이 아닌 평범하고 그러면서도 격조 있는 것으로 모와 캐시미어, 실크 등의 소재 사용하여 나타났다.

둘째, 메타몰포제 이미지는 스누드의 연출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깨에 칼라처럼 혹은 스누드는 같은 소재의 의상을 착용하여 한벌의 의상처럼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셋째, 엠파시즈 이미지는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강조점을 주는 것으로 스누드가 강조부위가 되는 이미지로 형태, 색, 부속품을 활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스누드는 의복의 단순한 액세서리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되면서 패션 이미지의 연출을 위한 코디네이트로서의 주요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패션에서 스누드 단독 아

이템뿐 아니라 다른 아이템들과의 조화를 이뤄 다양한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하이패션의 스누드 코디네이션에 따라 현재 트렌드의 패션 스타일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스누드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이미지가 현대인의 개성적 표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스타일링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종복 (2002). *패션키워드*. 서울: 도서출판 시대.
- 두정아, “머플러야 솔이야. 거리에는 ‘스누드’ 물결” (2009년 11월 28일 [2010년 3월 10일 검색]) *세게일보* [온라인기사];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
- 박순천, 김은실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법 및 착용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4호.
- 이전숙, 김용숙, 이효진, 엄혜정 (2003). *현대인의 패션*. 서울: 교문사.
- 이정옥, 최영주, 최경주 (1987).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이지현, “아직도 스카프? 잇 걸은 ‘스누드’를 두른다.” (2009년 11월 09일 [2010년 3월 12일 검색]) *한국경제* [온라인기사];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
- 정희경, 김정혜 (2002).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복식* 52권 5호.
- 허갑섬, 이병화 (1999). “패션연출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 Andrew Baseman (1989). *THE SCARF*. New York: Tabori & Chang.
- Charlotte Mankey Calasbetta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Airchild Books.
- Lois Martin (1994).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 Oxford University Press 편집부 (2008).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Washingt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온라인사전] (2010년 8월 18일 [2010년 8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n.wikipedia.org/wiki/Snood>
- 10th Edition Harper Collins Publishers, Collins English Dictionary 30th Anniversary Edition [온라인사전] (2009년 [2010년 8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423ebeb99f98433b9043f06e8752db39>